

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 위해 불펜 문제 해결 해야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서는 불펜진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엠펙뉴스'에 따르면 다저스는 전날 현재 45승 23패 승률 66.2%로 내셔널리그(NL) 1위에 올라있다. 이는 162경기로 환산할 경우 108승 54패에 해당하는 페이스다. 이대로 시즌을 마친다면 올해 다저스는 1953시즌 105승을 넘어 구단 역사상 단일 정규시즌 최다 승수 기록을 세울 수 있다. 그만큼 2019시즌 다저스는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올 시즌 다저스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단연 강력한 선발진에서 찾을 수 있다. 9승 1패 86.0이닝 평균자책 1.36로 다승·평균자책 부문 1위에 올라있는 류현진을 필두로 다저스의 선발진은 11일까지 33승 9패 396.0이닝 평균자책 2.75를 합작해냈다. 이는 MLB 30개 구단 선발진 가운데 다승·평균자책 부문 2위이자, 이닝 부문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한편, 타율 .353 20홈런 54타점 OPS 1.131 WAR 4.5승을 기록 중인 벨린저를 앞세운 타선도 NL 팀득점 2위에 올라있다. 심지어 다저스는 수비 기여도에서도 NL 1위에 올라있다. 한마디로 말해, 올 시즌 다저스는 선발진과 타선 그리고 수비에서 모두 흠잡을 곳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런 다저스에도 약점은 있다. 바로 불펜진이다.

올 시즌 다저스의 불펜진은 12승 13패 21세이브 11블론 199.1이닝 평균자책 4.56를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다. 평균자책 4.56은 MLB 30개 구단 불펜진 가운데 11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블론 세이브 11개는 6번째로 많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다저스의 불펜진은 199.1이닝으로 30개 구단 가운데 3번째로 적다는 것이다. 즉, 다저스 불펜진의 현재 성적은 강력한 선발진으로 인해 MLB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적은 부담을 받는 상황에서 거둔 성적이란 얘기다.

다저스는 지난 두 시즌 연속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눈앞에 두고 좌절을 맛 봐야 했다. 만년 2등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올해만큼은 반드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다저스의 불펜진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잘 알려져 있듯이 포스트시즌과 같은 단기전에선 불펜의 중요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월드시리즈 우승을 진지하게 노리고 있다면 다저스가 반드시 트레이드 마감시한 전까지 불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케빈 듀란트, 아킬레스건 부상 FA시장 요동

케빈 듀란트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됐다.

12일 농구전문매체 '루키'에 따르면 오른쪽 종아리 부상으로 한 달 이상 결장하던 듀란트는 10일 열린 토론토와의 파이널 5차전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그는 1쿼터 11점을 기록하는 등 건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쿼터 초반 또 다시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쓰러지고 말았다.

한 달 전에 다친 종아리 부상이 재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 발목을 부여잡은 듀란트는 펴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후 돌아오지 못했다.

이후 밝혀진 그의 부상 부위는 아킬레스건. 농구선수들에게는 특이나 치명적인 부위 중 하나다. 아킬레스 파열일 경우 다가오는 2019-2020 시즌에도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경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그의 부상으로 인해 FA 시장 역시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시즌 약 3,150만 달러의 플레이어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듀란트는 만약 옵션-아웃을 선언할 시 맥시멈 계약이 보장된 선수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부상으로 인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선수옵션을 활용하지 않고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파이널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적시장 상황을 거론하기는 다소 이르지만, 큰 부상을 피하지 못했기에 옵션을 활용해 한 시즌 잔류한 후 다음 시즌이 끝난 후에 자유계약선수가 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다만 여전히 듀란트에게 맥시멈 계약을 안겨줄 구단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SPN의 바비 맥스는 "여러 팀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여전히 구단들은 듀란트와 맥시멈 계약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듀란트와의 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는 골든스테이트, 뉴욕, 브루클린, 레이커스, 클리퍼스 등이 언급되고 있다.

듀란트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년 약 1억 6,400만 달러이다. 현재 소속팀인 골든스테이트는 그에게 5년 2억 2,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계약을 제시할 수 있다. 과연 듀란트는 치명적인 부상에도 이번 여름 맥시멈 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교육, 학군 전문가로 대학입시 코디네이터로 일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알맞는 학군의 집을 찾아드립니다.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Leah Ivy Chang Realtor

The REALTOR You Can TRUST



Looking for the Right Agent for the Job of Selling / Buying your Home?



DRE Lic: 02086695

미국교육전문가
입시코디네이터
College Consultant

949.501.8555

Fax: 714.367.1399 LeachangRealty@gmail.com

605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